

“망해가는 넥솔론 정부가 도와줘라”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찾아 경영 정상화 지원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췌)넥솔론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간담회를 보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익산상공회의소 박현재 부회장과 함께 조배숙 국회의원을 찾아 췌)넥솔론 지원을 통한 회생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10여년 간

전북의 태양광산업을 선도하며 창민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췌)넥솔론이 그간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한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정 시장은 “태양광 산업 분야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마련이

중요하고, 국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될수록 국내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속한 관련사업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 생산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정부차원 또는 정치권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넥솔론의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양광 산업에 투자 중인 기업들을 방문하고, 넥솔론 관계사 및 정치권 등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지역 기업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장원원 기자



사)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9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실내 달그락 Youth마켓'을 연다.

군산시 나눔문화 활성화 ‘어깨동무’

대한환경보건의원·카페리즈와 복지협약... 다각적 사회공헌 전개

군산시는 9일 (재)대한환경보건의원(이사장 강성용), 췌)카페리즈(대표이사 이인혜)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대한환경보건의원과 췌)카페리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과 무료급식소에 지원되길 희망하며 환가액 1억원 상당의 유기농 인스턴트 커피를 기탁했다.

(재)대한환경보건의원은 다문화가정, 탈북자, 소외계층의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으로 환경성질환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한방 치료 지원 등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췌)카페리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원료를 국내에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저소득 청소년 버리스타 양성 교육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강성용 (재)대한환경보건의원 이사장은 “우리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행복도시 군



군산시는 9일 (재)대한환경보건의원(이사장 강성용), 췌)카페리즈(대표이사 이인혜)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산 만들기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을리 이인혜 췌)카페리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기업의 이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LINC+사업단 ‘새출발’

군산대학교가 최근 대학 내 산학협력관 2층 중회의실에서 LINC+사업단 개소식 및 산학협력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학협력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군산대 LINC+사업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는 교육부 이용욱 사무관, 도내 산업체, 유관기관, 연구소 임원을 비롯하여 군산대학교 총장 및 교무처장, LINC+사업단장, 인문산학협력센터장, 산학협력 증진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나이균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산대학교는 인문산학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산학협력력을 총괄하고 인문대학과 산학협력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취업역량 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취업과 연계시키며 국공립대학 중에서 취업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생 50% 이상이 전북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지역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현장 간담회에서는 ▲군산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김경오 팀장이 군산지역, 특히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현황 소개 및 수평적 산업구조로의 개편 필요성을 ▲인문산학협력센터 장영철 센터장이 인문대학교의 각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학협력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익 군산대 LINC+사업단장은 “현대중공업 폐쇄와 GM대우 상황 등 군산 경제가 어렵지만 대학이 앞장서 지역사회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LINC+를 계기로 구축된 군산지역 산학연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쌍방향 산학협력력을 활성화하여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청소년 프리마켓 눈에 띄네

드라이플라워·네일아트·먹거리 등 판매 예정

군산시 월명로에 위치한 사)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가 9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실내 달그락 Youth마켓'을 열고, 오는 12일과 13일은 군산 영화동에 위치한 게스트 하우스 '책방'에서 '야의 달그락 Youth마켓'을 연다.

이번 마켓에서는 청소년자치연구소 내 청소년 경제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하는 청소년 경제활동 자치기구들이 모여 드라이플라워, 제과·제빵, 네일아트, 미용 컨텐츠, 피자, 음료, 책갈피, 의류, 종이서적, 악세사리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 마켓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직접 경제활동을 기획·진행할

으로써 진로 탐색을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활동 청소년 간의 연대식과 주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청소년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달그락 Youth마켓 총 수익금의 20%는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프리마켓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제품 제작능력을 활용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재능기부 활동 또는 지역 내 어르신께 리마인드 웨딩을 할 계획에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자치연구소 전화(063-465-887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성과 두각

중기 온라인쇼핑몰 마케터 양성사업 참여자 취업 성공

2017년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익산시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마케터 양성 사업 참여자 7명 중 2명이 사업 종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마케터 양

성 사업은 지난 3~7월까지 4개월간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본 직무·작업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으로 성장해 취업에 성공하게 됐다.

이외에도 시는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취업디딤돌 역할을 해 참여자들

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얼리 숙련공 양성사업', '주거복지사 양성사업' 등 20개 사업(71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 성공도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향도 산업인 섬유, 석재, 귀금속 산업의 연계로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익산시 기업이 더 많은 인재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원원 기자

군산대학교 문수연 주무관 대학발전 이바지... 교육부 장관상 영예

군산대학교 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문수연 주무관(사진)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대학 학사 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문수연 주무관은 1991년부터 군산대



학교에 근무하면서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왔고, 특히 학사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며 대학 학사행정 발전에 기여해왔다.

주요 공적으로는 졸업사정 전산화 업무 추진, 학적부 전산화 추진, 고등교육통계 고도화사업 시범대학 데이터 입력 및 고도화시스템 구축, 전문적인 학사상담 및 민원처리 등이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